

“200곡 블라인드 초이스…‘이문세표 올드 발라드’ 버렸죠”

16집 '비트윈 어스'로 3년만에 돌아온

이·문·세

3년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온 이문세가 꺼내든 카드는 '세대 공감'이다. 그저 나이가 많다고, 경력이 많은 선배라는 이유로 대접받길 원하는 '꼰대'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열린 마음과 자세로 대하겠다는 마음가짐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그 상대가 까마득한 후배이고 실력이 뛰어나다면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열렬한 환호와 박수도 마다지 않았다. 이것이 데뷔 40년차 가수의 여유다.

그런 의미에서 22일 내놓은 16집 '비트윈 어스'(Between us)는 '이문세가 사는 법'이 담겨있다.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곡차곡 앨범에 담았다. 동시에 새로운 관계 혹은 새로운 세대가 낯설더라도 열린 마음을 가진 기성세대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

'우리 사이'를 뜻하는 '비트윈 어스'는 이문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의 관계, 즉 '우리 사이'(비트윈 어스)에도 간극이 있듯이 음악에도 간극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면서 음악적으로 통하는 후배들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음악을 하고 싶었다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이날 오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새 앨범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를 연 그는 “개인적으로 10월을 가장 좋아한다. 10월을 좋아해서 10월에 결혼도 했고, 이번엔 새 앨범도 내놓게 되었다”며 “무엇보다 사람관계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대로 이번 앨범을 관통하는 큰 키워드는 '소통'과 '공감'으로, “오픈 마인드로” 후배 가수들과 폭넓게 교류했다. 헤이즈, 개코(다이아믹듀오), 선우정아, 임현일, 밴드 잔나비, SBS '판타스틱 듀오' 출신 김윤희 등 개성 강한 가수들이 작곡 및 작사, 보컬로 참여했다.

“이번 앨범에 곡 좀 쓰고, 가사 좀 쓴다는 후배들이 많이 참여해주셨다. 저는 익숙한데 서로는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 얼마 전에 후배들을 모아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귀한 자신들의 곡을 선배한테 선물해주지 않았나. 꼭 밥 한 끼라도 하고 싶었다. 음악을 함께 만드는 사이가 된다는 의미가 굉장히 뜻 깊지 않다. 그리고 저로 인해 작지만 음악 하는 선배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된 것 같아 뿌듯했다.”

후배들과 함께 한 사연이나 과정도 남다르다.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희미해서'는 헤이즈가 작사, 작곡한 노래다. 놓아버리지

개코·선우정아·잔나비 등 후배 가수들 작곡·작사·보컬 참여
헤이즈가 쓴 타이틀곡 '희미해서'…'이문세화'에 가장 애먹어
트렌드 뒤쳐진 올드 발라드 아무도 안들어…나부터 변해야죠



이문세는 22일 열린 16집 '비트윈 어스' 발매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음악적으로 통하는 후배들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음악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못해 선명하게 아팠던 기억과 감정이 시간이 지나 희미해져 아름다운 기억이 되었다는 가사가 인상적이다.

그는 “솔직히 노래를 듣기 전까지 헤이즈라는 가수를 몰랐다”고 고백했다. 곡을 고르는 과정에서 선입견 없이 결정하기 위해 ‘블라인드 초이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더 더욱 알 수 없었다.

“처음에 200곡 가량 받았다. 누구와 해야겠다는 선입견 없이 음악만 듣고 싶었다. 블라인드 초이스를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음색이 맑고 세시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다. 충격일 정도였다. 나중에 헤이즈라는 가수를 알고 깜짝 놀랐다. 헤이즈가 쓴 곡을 어떻게 ‘이문세화’할지가 가장 고민이었다. 수록곡 가운데 가장 연습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먹었지만 그만큼 값진 결과가 나왔다. 그 선물을 헤이즈가 준 거다.”

개코가 피쳐링한 ‘프리 마이 마인드’는 이문세가 작사, 작곡했다. 랩피처링을 맡아줄 가수를 찾다가 개코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직접 전화를 걸어 콜라보레이션을 부탁했다. 개코의 대답도 그 자리에서 돌아왔다.

“어쿠스틱한 랩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뮤지션이 개코라고 생각했다. DJ로 활동했을 때도 다이아믹듀오의 곡을 많이 틀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개코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직접 전화를 걸어 ‘다이아믹듀오 시절 때부터 좋았다. 개인적으로도 팬인데 혹시 내 새 앨범 작업에 참여해 줄 수 있냐’고 했더니 개코가 ‘물론이죠 선배님’이라고 하더라. 하하!”

이문세는 후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앨범이 더욱 “트렌디해졌다”고 했다. ‘발라드 황제’라는 타이틀을 가진 터라 ‘이문세는 이런 노래만 부를 것이다’ ‘이문세표 발라드’를 불러야 할 것만 같다는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다.

“이문세하면 아름답고 슬픈 발라드, 지금도 그걸 기억하실 것이다. 그걸 하면 듣지 않는다. 예전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트렌드를 쫓은 것이 아니라, 트렌드 하고 싶은 것이다. 트렌디한 음악도 오래된 팬들도 좋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BTS(방탄소년단)가 세상을 강타하니까, 어르신들도 듣는다. 이문세는 왜 올드한 노래만 해야 하나. 어르신들도 신곡, 세련된 곡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문세 16집 '비트윈 어스'에는 모두 10곡이 수록됐다. 임현일이 작사·작곡하고, 기타 연주한 ‘빛소리’는 이문세의 열창과 임현일의 기타 솔로가 웅장한 스케일을 합성한 노래다. ‘프리 마이 마인드’ ‘안달루시아’ ‘리멤버 미’ 등은 모두 지난 봄 떠난 스페인 여행에서 영감을 얻어 직접 작사·작곡한 곡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5

이석철·승현, 상습폭행 문 PD 고소

경찰, 구하라 전 남친 구속영장 신청

이성민·한지민, 영평상 남녀주연상

조용필, 12월 서울서 앙코르 콘서트

팝스타 에드 시런, 내년 4월 내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18)·승현(17) 형제가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문모 씨와 김창환을 22일 각각 고소했다. 이석철 형제의 아버지와 법률대리인인 정지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법경찰청을 찾아 문 씨를 상습 및 특수 폭행으로, 김창환을 폭행 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이모 대표와 회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19일 이석철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부터 연습실과 녹음실 등에서 문 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미디어라인은 더 이스트라이트에 남아 있는 네 멤버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는 협박과 상해·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9월13일 구하라와 최 씨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이 이뤄졌고, 이후 구하라와 촬영한 사적인 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 사건은 양측의 폭행 공방으로 진행됐지만, 구하라가 9월27일 최 씨를 강요와 협박·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경찰은 최 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이 없는 만큼 구속영장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이성민과 한지민이 영화평론가들이 뽑은 올해의 남녀배우로 선정됐다. 장준환 감독의 ‘1987’은 최우수작품상에 선정됐다. 한국영화평론가협회가 매년 주최해 올해로 38회를 맞는 영평상이 시상식에 앞서 22일 수상자(작)를 공개했다. ‘공작’ 이성민과 ‘미쓰백’ 한지민이 남녀주연상을 받았고, 남녀조연상은 ‘공작’ 주지훈과 ‘미쓰백’ 권소현에 돌아갔다. 윤종빈 감독은 ‘공작’으로 감독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신인감독상은 ‘소공녀’ 전고은 감독, 신인상은 ‘박화영’ 김가희와 ‘안시성’ 남주혁이 각각 받는다. 시상식은 11월13일 오후 6시30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조용필이 12월 서울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연다. 이를 통해 데뷔 50주년에 맞춰 진행한 ‘뽕스 투 유’ 투어의 대미를 장식한다. 조용필은 12월15일과 16일 이틀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앙코르 무대에 나선다. 조용필은 5월12일 서울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뽕스 투 유’ 투어를 시작했다. 당시 공연티켓은 예매시작 10분 만에 4만5000석이 전부 매진됐다. 조용필 50주년 추진위원회는 22일 “5월 공연 당시 폭우에도 몸을 사리지 않은 조용필의 무대와 관객의 환호가 뜨거운 감동을 자아내 서울 앙코르 공연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한 앙코르 무대”라고 밝혔다.

영국 출신의 팝스타 에드 시런이 내년 4월 21일 오후 6시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한국 팬들과 재회한다. 2015년 3월 첫 내한공연을 벌였던 시런은 지난해 10월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두 번째 내한할 예정이었으나 오른쪽 손목 골절과 왼쪽 팔꿈치 골절로 아시아투어를 취소하면서 불발됐다. 시런은 2011년 판매량 1000만 장으로 그해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데뷔 싱글인 ‘더 에이 팀’이 실린 데뷔 앨범 ‘플러스(+)’로 단숨에 주목 받았다. 2014년 정규 2집 역시 1600만장의 판매량으로 빅히트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발표한 앨범 ‘디바이드(÷)’ 발매기념 투어의 일환이다.